

2024년 11월 10일(주일) 제1708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기도가 먼저라!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2024 성경암송대회 교회학교별 본선

오늘 찬양예배 시 수상자들 암송

2024 성경암송대회 교회학교 본선이 오늘 있으며 부서별 수상자는 오늘 찬양예배 시 암송합니다.

1년 동안 성경암송을 위해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25 봉사 부서 신청

이번 주일부터 2025년 봉사할 부서 신청을 받습니다. 봉사 부서의 변화가 없으신 성도들은 작성하실 필요가 없으며 부서 이동이나 새로이 봉사하고 싶은 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서울교회에 최소 1인 1사역으로 봉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세요?

서울교회 상담부에 상담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문자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 상담분야 : 법률, 세무, 교육, 가정
- 연락처 : 010-2376-3892번으로
- 문자 양식 : 교구, 성명, 상담분야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지역주민과 수험생을 위한 금난새 오케스트라 마을음악회

11월 16일(토), 오후 7시, 본당

2024 사명자대회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수험생을 위한 금난새 오케스트라 마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입시로 지친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인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회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금난새 지휘자가 이끄는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 서울교회 그레이스랜드벨콰이어, 라루체 트리오, 전지희 오르가니스트가 순서를 담당합니다. 이 귀한 음악회에 많은 분들을 초대하시어 전도의 기회로 삼고 감사와 위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주민과 수험생을 위한
감사와 위로의
금난새 오케스트라 마을음악회

일시
2024. 11. 16. (토) 오후 7시

출연진
[지휘] 금난새, [연주] 뉴월드 챔버오케스트라 with 김다연, 이윤석, 지인환, 전지희

장소
서울교회(서울 강남구 삼성로51길 7)

[오르간]
그레이스랜드벨콰이어(지휘/송재철), 라루체 트리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 -

- 찬양예배 시 할렐루야찬양대 추수감사절 절기찬양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I·II·III부 예배 시 성찬식을 진행하며 추수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후 찬양예배 시에는 할렐루야찬양대의 추수감사절 절기찬양 A. Vivaldi의 Gloria로 지휘 백주원 권사, 파이프오르간 전지희 집사, 하프시코드 김진이 선생, 팀파니 윤주일 안

수집사가 담당하며 독창으로는 소프라노 구민영, 권이연, 조수연, 알토 양계화 선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 17(월) - 11. 23(토) 새벽 5:00 - 6:00

2024 사명자대회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서울교회 설립 당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화'를 지향하는 서울교회를 세우면서 7주간의 특별기도로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과 전도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해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을 앞두고 50일간 사명자대회를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에도 사명자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성경읽기와 기도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별새벽기도회 기간에 많이 참석하셔서 내 안의 기도제목을 내어 놓고 기도드리며 주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새벽기도회 요일별 담당 찬양대>

월	화	수	목	금	토
가브리엘찬양대	할렐루야찬양대	임마누엘찬양대	은빛찬양대	호산나찬양대 시온찬양대	베들레헴찬양대

빈들에서 만난 풍요

마 14:13-21



손달익 위임목사

예수님의 기적 중 4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내용은 흔치 않지만 유일하게 광야의 빈들에서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4복음서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빈들의 황량함과 무정함과 공허함이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격과 사랑이 넘치는 풍요의 빈들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전의 세계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창 1:2)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공허한 무의 세계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생명이 약동하는 충만한 세계로 바뀌어갔습니다. 마치 세계는 어미닭이

알을 품어 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지구 생명공동체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고 했습니다. 본래의 세상, 본래의 인간, 하나님 없는 세상은 흑암과 공허와 무의미한 것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에 생명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 임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엨 1:23) 본문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일하시는 곳인 메마른 빈들의 빈곤이 풍요롭고 차고 넘치는 충만의 자리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1. 빈들에 오신 주님

이때는 세례 요한이 순교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였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정의로운 외침은 백성들에게 영혼의 청량제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힘없는 백성들의 희망이었고 어두운 세상의 등대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없게 헤롯의 칼에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도 큰 상처와 충격을 받으셨고 그를 선지자로 여기며 따르던 많은 백성들은 위로 받을 길이 없는 허탈한 마음을 안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이들이 먹을 음식은 없었습니다.(13 - 15절) 이때 제자들은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자'고 제안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과 만남을 기뻐하고 내일을 그리워할 그 무엇도 없는 상황, 그것이 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빈들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것이 희망의 시작이었고 변화의 출발이었습니다. 빈들에 오셔서 현장을 살펴보신 주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막 6:34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빈들같은 삭막한 세상에서 내게 유리하지 못한 사정들을 비판할 뿐 이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빈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허전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모여든 그들을 어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해가 저물도록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이제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자고 하십니다. 주님의 긍휼과 안타까움과 사랑의 임재가 있는 이 현장은 비록 빈들이었으나 가장 풍요한 곳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삭막하고 냉정하며 희망없는 빈들 같은 우리 삶의 자리로 임재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우

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 곁으로 오십니다.

2. 빈들에 베푸신 능력

오병이어가 오천 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에 넘치도록 거두는 축복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따르면 이 표적 이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자 예수님께서서는 군중들을 해산하게 하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며 예수님 자신은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 가운데 광야에서 모세가 만나로 백성들을 먹인 것처럼 백성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 메시아일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 있는 반응입니다. 군중들은 '당신이 하시는 일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인 것처럼 우리에게 떡을 먹이셨는데 이것이 당신이 우리 메시아이신 증거 아닙니까?'(요 6:30 이하)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인생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의 떡으로 자기 몸을 주실 것임을 상징하는 표적으로 이 역사를 주셨음을 설명하셨습니다. 후에 주님은 다시 그를 찾은 사람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되게 하시려는 자기희생을 의미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빈들을 풍요의 현장이 되게 하는 것은 '마을로 돌려보내자'는 논리나 '이백 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발 빠른 계산 능력이 아니라 자기희생을 통해 세상의 양식이 되시려는 십자가 정신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삭막하고 냉정한 세상을 녹이시려는 수고를 조금도 아끼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희생을 당연한 삶의 원리로 아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이런 희생의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흑암과 공허의 세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현장이 되고, 빈들은 풍요한 축제 현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대한 긍휼, 현실에 대한 감사, 자기희생의 실천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 2:5) 라고 했습니다.

3. 빈들에 나타난 만족

이 광야에는 현실 정치의 잔혹함에 치를 떠는 사람, 어이없이 형장에 서 사라진 의인, 세례 요한이 가까워서 통곡하는 사람, 일용할 양식이 없어 견디기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 마을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자는 사람, 탁월한 능력으로 필요한 재정 규모를 계산하는 사람, 한 소년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드린 안드레 같은 사람 등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주님의 역사하심 앞에 모두가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갖추어진 삶을 살고 있지만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만족이 나의 결핍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는 제자들도 군중도 어른도 아이도 모두가 만족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들을 만족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특수한 민족, 특별한 계층과 신분 사람에게만의 복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복음입니다.

광야에서 은혜가 나타난 결정적 순간은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축사하실 때였습니다. 먹을 사람은 광야에 가득한데 주님 손에 들려진 것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라는 말 'Euxaristo'는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적은 감사하는 주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음악회로 교회는 회복되고 떠났던 형제들이 돌아오길 ...

이번 주 토요일 우리 교회는 온 성도와 이웃이 함께하는 마음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서울교회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 주민과 수험생과 가족, 그리고 우리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으나 여러 이유로 한동안 소원했던 옛 성도들을 초청하고 함께 모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한 일들을 추억하고 기억하며, 서울교회를 통하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음악회에 우리 모든 성도는 함께 모이게 됩니다.

모든 교구와 다락방과 교회학교 등 모든 교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부서의 참여독려와 행사진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이웃에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웃을 초청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보 삼지로 배부되는 초대장을 우리 이웃 모두에게 전하고 오실 이웃과 함께 이 음악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을의 풍성함을 같이 누리고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복잡한 정세와 전쟁이 종식되도록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선교지 현재 상황 1) 국제정치 및 일반적 상황

2014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이후 NATO 서방 측의 러시아 경제제재, 2017년 7월 시행된 종교법으로 러시아 선교사역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었는데, 2020년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거의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겨우 현상 유지만 해나가면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되어가던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러시아에서 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기소됨)으로 NATO 서방 측과 러시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현재 거의 냉전 수준의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설정한 비우호 국가에는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모든 국가가 포함되어 비우호 국가 국민은 러시아에서 거주하거나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재와 감시를 받고 있으며, 일부는 본보기로 추방 및 입국금지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과 봄에 간첩죄로 체포된 00선교사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한인회장을 지낸 이00씨가 갑자기 공항에서 50년 입국금지를 당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융통신망인 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함으로 인해 많은 기업과 개인 비즈니스맨, 유학생들도 필요경비 송금, 인출

등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올해 봄 현대자동차 상트 페테르부르크공장이 1유로에 공장을 넘기고 철수하고, 우리은행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점도 5월에 철수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여름 북러간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이 체결되어 지금 북러간 서로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어, 한러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보다 한러관계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 국민이 러시아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기에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며, 러시아에서 떠나야 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2) 선교적 상황

선교사역적 측면에서 보면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에 다니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으며, 전쟁 상황으로 징집 등 현실적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대부분의 러시아 국민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이 지역에서 있는 힘을 다하여 전도하여 교회에서 양육해 놓으면 졸업 후 모스크바나 상트 페테르부르크 등 대도시로 일 자리를 찾아 떠나는 상황이고, 고려인들 또한 일 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가거나 계속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떠나는 상황이라 선교하는 우리로서

는 낙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떠나간 성도들이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2. 2025년도 사역 계획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대에 과연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이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2024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하여 냉전 시대로 간다면 우즈베키스탄, 중국 처럼 선교사들이 모두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계속 기도하며 상황을 주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냉전 수준이라 할 수 있고, 한러 관계는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활발하게 사역할 수도 없거니와 무리하게 새로운 사역을 계획할 상황이 아니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존 사역을 회복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활발하게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먼저 기존에 하던 모든 사역을 회복하는데 온 힘을 다할 생각이며,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이 지

역을 전도 전초기지 역할을 하도록 선교센터 건축을 준비해 오다가 여러 상황으로 지금까지 미루어져 온 선교센터 건축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위에 보고한 대로 러·우 전쟁 상황이 종식되

고 한·러 관계가 우호관계로 바뀌는 대로 바로 선교센터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2025년 러시아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러시아에서
김영호 · 서향정 선교사 올림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며

앞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교제의 은혜가 충만해지길...



고정희 성도
(3교구)

정든 교회를 떠나 새로운 동네로 이사오게 되어 많은 걱정이 앞섰는데, 서울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가족부에서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살롬대학에서 많은 자매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어려움 없이 서울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새가족 교육의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믿음이 더 성장하고 나눔과 교제의 은혜가 충만할 거라 생각합니다.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편지 왔어요

도심리 편지

안녕하세요. 도심리교회에서 문안드립니다.

매년 11월 첫째 주에 저희 도심리교회는 창립주일과 추수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이날 추수감사 농산물은 성도님들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직접 농사지은 수확물 중 구별하여 가져 오신 것으로 꾸밈니다.

그래서 찬양도 우리의 소원 아리랑, 나의 살던 고향 등 모든 분들이 잘 아는 곡에 개사해서 부릅니다.

서울교회의 후원과 관심과 에스더전도회의 중보기도로 도심리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1월 14일(목), 오전 8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시간	과목	순서	인도자
8:40-10:00	1교시 국어	찬양	전진석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손달익 목사 장석남 목사
쉬는 시간			
10:30-12:10	2교시 수학	찬양	전진석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김익환 목사
점심시간			
13:10-14:20	3교시 영어	찬양	전진석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최종국 목사
쉬는 시간			
14:50-16:37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 탐구	찬양	전진석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설교, 기도회	전진석 전도사(고등부 교역자)
쉬는 시간			
17:05-17:45	5교시 외국어, 한문		개인기도

영아부 교사 모집

영아부에서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아부는 출생 후 20개월까지의 아가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부서입니다.

섭기실 내용은 2부 예배 전 영아부 실(403호) 환경정리 및 영아들을 위한 기도 사역과 부모님들의 예배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새싹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을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지원 자격 : 서울교회 등록

세례교인

-문의 및 지원 신청 : 영·유아부

성선혜 교육 전도사



지난주 우리 교회는



▶▶ 지난 9월 5일(목)에 개강하여 10주간 진행한 살롬대학(부장 : 백도환 장로)이 11월 7일(목)에 종강하였습니다. 봉사하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주일 초등부(부장 : 임대중 안수집사)는 한티공원에서 야외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가을 안으로 들어간 초등부였습니다.

29강 : 사도신경의 내용을 알고 믿는 유익(3)

63문 :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답 :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62문에서 언급한 선행과 63문에서 언급한 '선행'이 단어는 같지만, 의미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단어를 말할 때의 분위기와 맥락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느라 혹은 다른 일을 하느라 '단톡방'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피드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맥락이나 분위기를 알지 못할 때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62문에서 말하는 선행이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선행으로 타락한 인간 또는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되기 이전의 인간이 행한 일을 말합니다. "죄인이 행한 선행은 선행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선행이라고 다 같은 선행이 아니라, 죄인이 행한 선행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행은 아닙니다."

63문에서 말하는 선행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게 된 인간이 행한 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인간이 행한 선행이라면,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선을 행한 사람에게 지분이 얼마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을 받는다는 말은 선행을 한 사람을 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선행으로 인정하고 상을 주시겠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상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전제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는 말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위에 대한 댓가로 주어지는 포상과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은 다릅니다.

64문 :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답 :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64문에서 말하는 "이러한 가르침"은 앞에 나온 제63문답을 가리킵니다. 제63문답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기에, 이러한 가르침이 사람들을 (선행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또 그 결과 사람들이 사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일까요? 64문은 제63문답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에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64문이 나오게 된 논리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행에 가치를 두지 않고 또 선행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굳이 선행을 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어 선행에 무관심

하게 될 것이고, 선행을 하지 않게 되면 선이 결핍이 되어 그 결과 악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선행과 은혜와의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선행과 은혜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행하는 은혜' 때문이고, 이 선행하는 은혜에 대한 응답이 선행의 동기가 되며,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선행입니다. 64문답에서 언급하고 있는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고 믿고 의롭게 되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상급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상급을 포상 및 뇌물과 혼동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포상은 행위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뇌물은 나의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한 댓가성 물질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선물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상급을 포상이나 뇌물과 연결시키면 64문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봐야 포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없다면, 기본만 하자는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도 은혜로 여기는 사람은 포상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면서 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라면, 포상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 역시 은혜입니다.

정리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용할 수 있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비유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대조되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가운데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 하십니까? 아버지와 늘 같이 있으면서도, 아니 어쩌면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큰 아들. 반대로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고, 돈도 떨어져 보니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은 고생을 통하여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동일하게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받았고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큰 아들의 경우는 받고 누리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은혜를 은혜로 여긴다는 것은 받은 것과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마치 거지꼴을 한 작은 아들이

스스로 품꾼 중의 하나와 같이 여기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행위가 있었다는 우울감,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많은 일을 했기에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보상심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일한 만큼 받는 사람, 또는 받는 만큼 일하는 사람들이 프로라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아마추어, 곧 그 일을 좋아해서 대가에 대한 큰 기대없이 하는 사람들과, 또 그래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 옆에 주차 하기
2. 앞 옆 혹은 2중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안내위원 안내복 공유 요청

예배위원회에서는 현재 안내위원들의 안내복 구입 단가 상승함과 더불어 보관 중인 안내복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는 성도들의 안내복 공유를 요청드립니다. 사무국이나 예배 안내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위원회 섬김위원 모집

주일 1부, 2부, 3부, 찬양예배 및 수요일 1부, 2부에서 섬겨주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을 모집합니다. 섬김을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교회 사무국에 비치된 "섬김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성경읽기표 수거

매주 전교인성경읽기를 하시는 성도들은 순례자 6면에 게재하는 성경읽기표를 작성하여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 사명자대회본부는 참여한 성도들과 우수다락방에게 시상할 예정입니다.

70인전도대 11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11.3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11.6	도르가, 루디아, 뫼뵈
11.10	자원자	바울, 엘리야	11.13	마리아
11.17	자원자	모세	11.20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11.24	자원자	이삭	11.27	리브가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소서.
2. 지역주민과 수험생을 위한 '금난새 오케스트라 마을음악회'가 이웃과 함께 웃고 우는 교회 되는 선한 계기가 되게 하소서.
3. 이 땅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에 평화와 복음화된 통일을 허락하시고,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등 전쟁과 분쟁 지역에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맥체인 성경통독			
11월11일	월	행 13-14	왕하24	히6	울3	시144
11월12일	화	행 15-16	왕하25	히7	암1	시145
11월13일	수	행 17-19	대상1,2	히8	암2	시146,147
11월14일	목	행 20:1-22:21	대상3,4	히9	암3	시148
11월15일	금	행 22:22-25:27	대상5,6	히10	암4	시149,15
11월16일	토	행 26-28	대상7,8	히11	암5	눅1:1-38
11월17일	주일	롬 1-2	대상9,1	히12	암6	눅1:39-80

사명자대회 기간 중 성경을 읽으신 성도들은 절취선 따라 잘라서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교육목사

박미라 손주찬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태연

◇ 준전임전도사

전진석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조하영

◇ 협동목사

양정호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minster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minster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minster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홈페이지QR코드



■ 유튜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